

## 고리원자력본부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안부장관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가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포상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역특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지역 공동체 강화는 물론 봉사단 양성,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 추진 등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직원 1천467명으로 구성된 고리봉사대를 운용,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봉사활동(총 6개 분야)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으며 ▲ 사랑의 집수리 ▲ 겨울철 김장 나눔 ▲ 이동 호드림 ▲ 태풍 피해 복구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8년부터는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지역 내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울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5천만원의 후원금을 기장군 내 9개 지역아동센터에 전했다.

노기경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로 큰 상을 받게 됐다"며 "고리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기경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로 큰 상을 받게 됐다"며 "고리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기경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로 큰 상을 받게 됐다"며 "고리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 ▼



노기경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가운데)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딧불 공방 가구나눔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발전소 인근 마을에 대한 복구 작업



##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